

파주출판도시

# 어린이책잔치

파주어린이 책잔치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도시'라는 주제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는 파주어린이책잔치는 (재)출판도시문화재단이 주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출판도시문화재단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파주시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도시'라는 주제로 작가의 글과 독자의 상상이 만나 어우러지는 책 속 세계처럼 자연과 도시가 공동체 안에 녹아드는 행사로 구현했다. 생태와 건축적 조형이 어우러진 도시에서 열린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2009는 어린이들이 책이 단순히 읽을거리가 아니라 넓디넓은 놀이터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2009**

2009 여수 유린도시 어린이마을 철자  
우리가족♥우리집♥우리도시  
5월 1일(금) ~ 5월 31일(화) | 거리문화행사 5월 1일(금) ~ 5월 5일(화)  
5월 1일(금) ~ 5월 31일(화) | 거리문화행사 5월 1일(금) ~ 5월 5일(화)

本部 877-25-1774  
本部 877-25-1775  
本部 877-25-1776

## 가족, 집, 도시 = 신나는 책잔치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가 올해로 일곱 번째 잔칫상을 차렸다. 이번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는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도시’라는 주제로 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제에 고개가 갸웃거렸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에 모여 빵을 굽듯 책을 만드는 책마을 사람들에게 ‘도시’의 의미는 각별할 수밖에 없다. 가족이 모여 집을 꾸리고, 집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을 가만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중심에 있는 ‘가족’에게 주목하게 된다.

출판도시도 마찬가지이다. 하루에 몇 백 종씩 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 모양새나 충실히 제각각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다양한 자화상을 책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이번 책잔치의 주제였다.



테마전시중 하나인 신간 아트프린팅2009

## 재미가 없으면 행사가 아니다

이번 행사의 내용은 크게 전시와 공연으로 나뉘졌다. 먼저 테마전시 ‘책, 함께 사는 공간’은 행사 기간 내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다목적홀과 지하 특별전시장에서 열렸다. 이 중 한 코너인 ‘신간 아트프린팅전 2009’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순수 창작 그림책들에 실린 원화의 느낌을 고스란히 살린 아트프린팅을 보여주었다. 프리랜서 작가 최정화는 형형색색의 소쿠리를 나무처럼 우뚝 세우고, 파도처럼 겹겹이 넘실대게 만들어 아이들의 상상주머니를 톡톡 건드렸다.

이밖에 부대전시로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책 읽는 모습을 담은 ‘책 읽는 사람 사진전’과 각 출판사의 어린이책 표지들이 한자리에 모인 ‘어린이책 표지전’, 동화책을 원화로 감상할 수 있는 ‘동화그림 원화전’ 등이 진행되었다.

1 어린이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2 어린이책표지전

3 테마전시 ‘책, 함께 사는 공간’ 모습

4 출판사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했다.



## 다양한 놀이공간 마련

'내가 꾸미는 활동—새롭게 태어나는 장소'는 질문이 숨겨진 종이를 갖고 아이 스스로 탐정이 돼 테마전시장 곳곳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놀이다. 비밀을 모두 알아낸 아이는 야외전시장으로 옮겨가 건물 유리벽과 기둥, 계단 곳곳을 그림으로 꾸며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일부터 5일까지 1회 1시간30분씩 하루 네 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야외 썬큰가든에서 진행되었다.

'내가 만드는 서가—찾아서 만드는 목록'은 도서관 사서와 함께 내 책꽂이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 알아보고 나만의 도서 목록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행사 기간 내내 매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테마전시장을 찾은 아이들은 책 속 세상이 튀어나온 듯한 환상적인 전시장에서 더욱 새롭게 책을 접하고, 공연장에서는 주말마다 노래하고 춤추고 말을 거는 책을 만날 수 있었다. 한쪽에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고사리 손으로 직접 책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부모와 선생님은 그동안 아이들에게 맞는 독서법을 지도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작가의 글과 독자의 상상이 만나 어우러지는 책 속 세계처럼 자연과 도시가 공동체 안에 녹아드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도시 곳곳에 보물처럼 이야기를 숨겨놓고 한 달 동안 펼쳐진 이번 행사는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됐을 것이다.



1 테마전시장 내부에 진열된 책

2 꼬마 아가씨들이 책속에 빠져있다.

3 야외에서 진행되었던 서점 코너에서 한 초등학생이 유심히 책을 보고 있다.

4 야외서점 부스에서 헌책 코너와 유명전집 할인행사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 북올림픽, 출판사 옛보기… 신나는 도시탐험!

출판도시 테마전시는 1일부터 5일까지 출판도시 입주사 사옥 및 거리에서 진행되었다. 골목 골목 길 따라, 출판사에서 직접 준비한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오월의 출판도시에서 체험해 볼 수 있었다. 그림책 원화 전시, 체험행사, 작가와의 만남, 기념품 증정, 도서 전시 및 할인 판매 등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 전시행사로는 5일까지 '책 읽는 사람 사진전' 31일까지 '어린이책 표지전', '60·70년대 만화와 교과서전' 등이 펼쳐졌다.

공연으로는 마술사 삼총사가 펼치는 재미있고 신기한 '책 마술쇼'가 5일에 있었으며, 판소리동화도 감상하고 작가와 연극인이 직접 들려주는 책 속 구절도 음미하는 콘서트형 책 낭독회가 9일 오후 2시에 진행되었다. 선생님과 함께 노래와 춤을 배우며 동화 세계를 체험해 보는



체험형 공연인 '빛그림 이야기'가 23일 오후 1시에,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만드는 문화나눔 공연인 북시티 문화 공연도 매주 토·일요일 12시에 펼쳐졌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어린이 인형극 '별이 된 도마 이야기'는 5일 11시와 오후 3시에 공연되었다.

강연으로는 '울지마 꽃들아' 최병관 작가의 '비무장지대 이야기'가 5일 오후 2시에, 학교 도서관 선생님과 출판사 탐방과 책 낭독회를 함께 하는 교사 초청 행사와 파주시와 함께 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 초청 행사가 9일 10시에 진행되었다.

체험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책벌레 아이들과 함께 책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직접 한 권의 책을 완성시켜 보는 도서관 우수 이용 어린이 초청 행사는 23일 10시에 개최되었다.

뜨거운 불화덕에서 쇠를 달구고, 망치질을 하고, 우리 조상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대장장이 체험 워크숍도 31일까지 열렸다. 이외에도 △도서관으로 개조한 버스 안에서 책도 읽고, 선물도 받는 '책읽는 버스'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등 현지 선생님이 각 나라의 특징과 문화를 소개해 주는 '다문화 수업' △송례문을 기념하는 모형을 제작, 아이들에게 희망의 추억을 심어주는 '송례문을 지켜라' △직지의 역사를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보는 '직지 인쇄 체험' △나만의 팝업북을 만들어 보는 '북아트 체험' 동화주인공과 함께하는 '천연 책비누 만들기' 등이 5일까지 열렸다.

또한 어린이날에는 책 쌓기, 책 릴레이, 북 도미노, 박 터뜨리기 등 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기를 펼치는 '북 올림픽'이 11시부터 5시까지 열렸으며, 책에 대한 관심을 기우고 지식도 뽑내보는 '독서 퀴즈 대회'도 개최되었다.

무공해 전기자동차를 타고 책아저씨의 설명을 들으며 즐기는 출판도시를 산책하는 전기차 투어는 16~17일과 23~24일에 진행되었다.

#### 대한인쇄문화협회·청주시, 직지홍보관 운영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남봉익)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평주출판도시어린이책잔치 2009' 행사에 직지홍보관을 운영했다. 54m<sup>2</sup>(6m×9m) 크기의 전시부스에 직지홍보관을 마련해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해 직지의 가치와 중요성, 금속활자가 인류발달에 끼친 영향, 홍역사 금속활자가 과학발달사에 준 역할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현지 상주하며 관람안내와 직지 금속활자판 인쇄체험을 실시하는 한편 관람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람자들에게 직지홍보 책자를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1-2 어린이 참여프로그램인 '종이로 만든 세상'과 '함께 만드는 도시'

3 인자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북예술 쇼' 프로그램

4 책 낭독회 프로그램

5 김소리와 함께 떠나는 국악여행 프로그램